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회장단 회의 개최

2004 상반기 진행 사업 및 협회 회관건립 기금 현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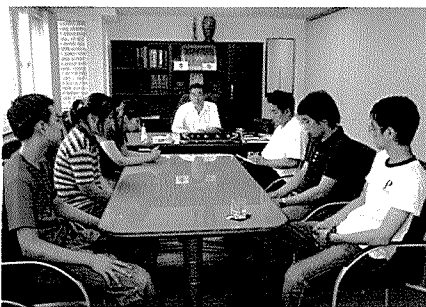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8월 16일 본 회관 회의실에서 2004년 두 번째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총 10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부회장 위촉에 관한 보고와 2004년도 상반기 사업 전개에 대한 간략한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또 2004년 하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해 협회 회관건립 기금 현황, 협회 로

고 개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부회장으로 위촉된 CJ(주) 김흥연 상무와 (주)크라운베이커리 김옥중 상무 이사, 케익타운과자점 김성환 대표 등 3명의 부회장들과 간단한 상견례 시간을 마련해 환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모 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제과회관 건립은 중앙회가 각 지회·지부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이라며 "제과인의 위상을 높이고 제과업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국제기능올림픽 훈련원생 해단식 개최 한국 대표 선발전까지 개인별 훈련 돌입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8월 4일 본 회관에서 김영모 회장,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훈련원생 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월 선발전을 통해 발탁된 훈련원생은 지난 7월까지 (사)대한제과협회가 지정한 업체에서 현장 실무 교육을

받고 매주 1~2일은 합숙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각 훈련원생은 오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대표 선발전이 있을 때까지 개인 훈련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김영모 회장은 "그동안의 훈련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인 훈련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북지회 2004년도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개최

강북지회(지회장 김흥주)는 지난 7월 15일 강북구 보건소 4층 교육장에서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많은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구 환경위생과 양병규 계장이 제과점 영업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식품행



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 제과제빵 부문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영경훈 강사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 및 식품의 품질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또 현재 제과점을 경영하고 있는 정진혁 강사가 토론 형식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흥주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더라도 뛰어난 기술과 저력으로 제과인 모두 고객을 만족시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서귀포시·남제주군지부 지회 명칭 서귀포시· 남제주군지부로 변경

서귀포시·남제주군지부(지부장 지남부)는 지난 7월 24일 서귀포시지부에서 서귀포시·남제주군지부로 지부 명칭을 변경했다. 이로써 서귀포시에서 남제주군까지 지부 활동 영역을 넓혔다.

중부지회 2004년도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개최

중부지회(지회장 이기철)는 지난 7월 29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230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청 환경위생과 김중근 과장이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식품위생 시책과 1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한국관광대 김봉수 교수의 운영관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기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과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군포·의왕시지부 임원 단합대회 개최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이관형)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공평리 유원지로 임원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이관형 지부장을 비롯해 14명의 임원이 참석해 임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군포·의왕시지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화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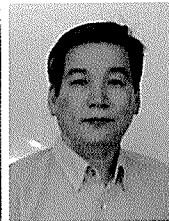
안양시지부 간부진 단합대회 개최



안양시지부(지부장 남기석)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 병곡안에 위치한 시골풍경에서 교문, 자문위원, 이사, 지역장 등이 함께 참여한 간부진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기석 지부장을 비롯해 60명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오랜만에 지회 사무실을 벗어난 간부진들은 경기 불황을 타개할 논의를 하며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경주시지부 창립, 지부 발전 위한 결속 다짐

지방 소도시 베이커리 시장 활성화 토대 마련



차주태 지부장

경주 지역 제과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대한제과협회 지부 결성이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속에서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경주시지부(지회장 차주태)는 지난 7월 28일 경주제과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차주태 지부장 및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경주 지역의 베이커리 업계 활

성화 및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유복 부회장을 비롯해 내·외빈이 참석해 경주시지부의 도약을 기원했다. 오래 전부터 경주시지부 창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차주태 지회장을 비롯해 뜻있는 제과인들은 2004년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경주시지부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지부 창립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7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지부 결성이 추진되면서 급물살을 탄 지부 창립은 지부를 결성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발기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일이 진척됐다.

본업인 제과점 경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여기 저기 쫓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한 발기인들은 마침내 18일 만에 지부 창립이라는 큰일을 해냈다.

경주시지부는 현재 8명의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떤 지부 살림을 맡아 튼튼한 재정과 조직을 완비해야 하는 지부장의 자리에는 그동안 지부 창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차주태 씨(영국제과)가 선출됐다. 부지부장에 이기석(파리팡스)·김형준(빠리자엔느) 씨, 사무장에 남교태(밀로베이커리) 씨, 감사에 양기웅(몽쉐리)·구연모(빵의나라) 씨, 기술이사에 박영태(강콩뜨레)·권용진(쁘띠르방) 제과기능장이 각각 선출돼 초대 지부를 이끌게 된다.

임원들 모두 지회 창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로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야말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또다시 초대 지부의 중책을 맡아 효율적인 지부 운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현재 경주시지부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18개 제과점. 사실 경주지역의 제과점 업소는 심각한 상태의 감소 추세에 있다. 유례없는 경기 불황을 맞아 고전하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마케팅 경쟁에서 밀리는 통에 원도우 베이커리가 발 디딜 곳이 점차 사라지는 것. 제품의 맛보다 마케팅과 유통이 중요시되면서 모기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영역을 넓혀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실시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연관한 20% 할인행사는 원도우 베이커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치명타이다.

이에 경주시지부는 중앙회에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아직까지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회원들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지방소도시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이사를 중심으로 각종 제품 정보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세미나도 틈틈이 개최할 예정이다.

2004년도는 회원 증대를 목표로 제과점은 물론 피자전문점과 햄버거전문점 등 패스트푸드 점까지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 차주태 지부장은 "경주시 제과업계 발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다 바치라는 의미에서 지부장의 자리를 맡긴 듯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끝까지 잘못 채워지게 마련이다. 지부 발전을 위한 지부장의 역할과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의견을 폭넓게 나누어 빠른 시일 내에 경주시지부 회원들을 위한 권익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과회관건립모금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사)대한제과협회가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서초동 회관 시대를 맞았다. 제과인들의 꿈이 영어가 갈 새 보금자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세미나실·연구실·역사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돼 앞으로 제과기술발전과 업계 정보의 데이터화에 쓰이고, 더 나아가 제과인의 사회적 위상정립의 기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관건립기금모금에 기술인 한명 한명에서 학교·학원, 관련 업체까지 제과업계 전체가 업계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 8월 24일 현재까지 총 3억 5천 182만 원의 앞도란같은 정성이 모아졌다. 제과회관건립모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쭉 계속된다.

회관건립기금 후원 현황 : 총 금액 3억5182만 원

신규 건립기금 후원자 명단

(주)크라운베이크리 운영달 대표	2,000만 원
김성환 부회장	1,000만 원
(주)제원인터내쇼날	1,000만 원
(주)하셀메디칼, 롯데산소마을 홍순봉 대표	1,000만 원
(주)유니온무역	300만 원
종각21C제과제빵전문학원 이노운 원장	300만 원
여석회	200만 원
화신문화사	200만 원
인천과우회	100만 원
복지부동산	100만 원
한미제과제빵학원	100만 원
대한제과제빵학원 오병호 원장	100만 원
현대제과제빵학원 강언숙 원장	100만 원
이앤피푸드	50만 원
선우출력	50만 원
경희대학교 이광석 교수	30만 원
서강현	20만 원
슈가아뜨리에 이종열	20만 원
필립 이리아	20만 원
최윤석	10만 원

지회·지부

강남·서초지회	618만 원
홍종흔(100만 원), 홍종식 지회장(50만 원), 권문환 부지 회장(20만 원), 권상원 부지회장(20만 원), 정원기 부지 회장(20만 원), 박종근(15만 원), 양종국 부지회장(10만 원), 한길상 부지회장(10만 원), 박경선 이사(10만 원), 안 영순 이사(10만 원), 오세천 이사(10만 원), 정일균 이사 (10만 원), 주재용 이사(10만 원), 최형근 이사(10만 원), 박형섭 고문(10만 원), 김승도 고문(10만 원), 이상선 고 문(10만 원), 석진동(10만 원), 박용권(10만 원) 김중구 감 사(10만 원)	

강동·송파지회	534만 원
서정웅 고문(100만 원), 도용후 지회장(50만 원), 안승호 고문(50만 원), 이낙근 고문(30만 원), 양성규 부지회장 (20만 원), 맹정호 고문(20만 원), 노영대 고문(20만 원), 박정희 사무국장(20만 원), 정진구 부지회장(10만 원), 주재호 부지회장(10만 원), 김기균 고문(10만 원), 정빈수 이사(10만 원) 이은택 이사(10만 원), 최병욱(10만 원)	

대구·경북지회	400만 원
---------	--------

동부지회	332만5천 원
김중주 지회장(50만 원), 이사회(20만 원), 진승택 이사 (10만 원), 김윤봉 부지회장(10만 원), 이춘우 부지회장 (10만 원), 이남길 이사(10만 원), 서영선 이사(10만 원), 정은순 이사(10만 원), 신성목 이사(10만 원), 인재홍(10 만 원), 이영수(10만 원), 과우회 일동(10만 원), 최용자 회원(10만 원)	

대전광역시지회	330만 원
---------	--------

양천지회	321만 원
주재근(150만 원), 이동택(50만 원), 조창덕(15만 원), 문 병구(10만 원), 박경복(10만 원), 조담용(10만 원), 황병선 (10만 원), 김일곤(10만 원)	

성동·광진지회	228만 원
안성국 지회장(50만 원), 아우교(15만 원), 김흥기 부지회 장(10만 원), 박기영 부지회장(10만 원), 이길현 부지회장 (10만 원), 박승훈 부지회장(10만 원), 이정일(10만 원), 김승훈(10만 원), 이재옥(10만 원), 김인덕(10만 원), 남영 득(10만 원), 이용구(10만 원)	

마포지회	211만5천 원
송연환 지회장(50만 원), 김연섭 명예회장(30만 원), 장 공희 지문위원(10만 원), 김영수 수석부지회장(10만 원), 지성구 부지회장(10만 원), 유광중 부지회장(10만 원), 박 진주 부지회장(10만 원)	

중부지회	220만 원
이기철 지회장(50만 원), 이사회(35만 원), 하택근 부지 회장(10만 원), 유재용 부지회장(10만 원), 장창익 부지회 장(10만 원), 조성민 고문(10만 원), 류제신 고문(10만 원), 유경오 고문(10만 원)	

의정부시지부	178만7천 원
남기현 지부장(10만 원), 이규상 부지부장(10만 원), 이재 석 고문(10만 원)	

성북지회(일부)	107만 원
채동현(10만 원)	

공주지부	73만 원
김길성 지부장(10만 원)	

남양주시지부	70만 원
박성구 지부장(10만 원)	

논산지부	50만 원
------	-------

평택지부	50만 원
박성용 지부장(15만 원)	

경산시지부	50만 원
-------	-------

광양시지부	40만 원
-------	-------

제과회관건립기금 '뜻 모아' '정성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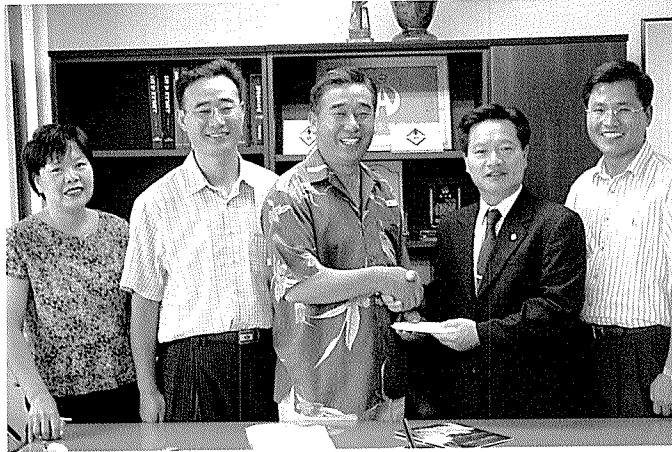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제과회관에 대한 제과인들의 정성이 이곳저곳에서 담지했습니다. 회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기금을 전달한 지회와 지부도 있었고, 제과인의 한 사람으로 제과회관건립에 꼭 동참하고 싶었다는 슈거아티스트도 있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어려운 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신 회원 및 기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성환 중앙회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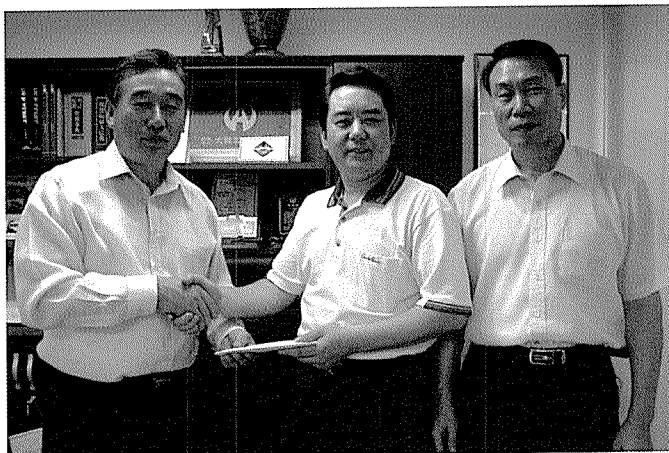
강동·송파지회 지회장 도용후



양천지회 지회장 이동택



중부지회 지회장 이기철



공주시지부 지부장 김길성



의정부시지부 지부장 남기찬

중앙회

김영모 회장 5,000만 원, 조승환 고문 1,000만 원, 조병천 수석부회장 500만 원, 박찬희 부회장 500만 원, 김유복 부회장 300만 원, 유현식 부회장 200만 원, 신동균 부회장 200만 원,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100만 원, 최인호 기술지도위원 100만 원, 이남호 전(前) 사무총장 110만 원, 중앙회 직원 및 지회·지부 사무국장 44만 원, 유인철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함상훈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고화원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최문성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신현수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위재상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지회·지부

서울 남부지회 - 366만 원
 최용길 지회장(50만 원), 전영식 부지회장(20만 원), 과우회(20만 원), 장승호 부지회장(10만 원), 강현철(10만 원), 김귀만(10만 원), 박삼남(10만 원), 백응순(10만 원), 오명수(10만 원), 이경섭(10만 원), 이근배(10만 원), 정갑희(10만 원)
 울산광역시지회 - 241만 원
 서울 노원지회 - 218만 원
 홍영표 지회장(50만 원), 체육대회 상금 (15만 원), 김광식 고문(10만 원), 민부곤 고문(10만 원), 김재섭 부지회장(10만 원), 장재수 부지회장(10만 원), 이기원 부지회장(10만 원), 최형일 부지회장(10만 원), 강형석 사무국장(10만 원), 이기열 감사(10만 원), 오홍근 이사(10만 원)
 마산시지회 - 200만 원
 서울 강북지회 - 134만 원
 김흥주 지회장(50만 원)
 서울 성동·광진 지회 - 120만 원
 안산시지부 - 100만 원
 통영시지부 - 100만 원
 용성북 부산광역시 전(前)지회장 - 100만 원
 군포·의왕시지부 - 54만 원
 남원시지부 - 52만 원
 한계수 지부장(10만 원)
 대구·경북지회 기술지도위원 - 50만 원
 순천시지부 - 50만 원
 지부예산(16만 원), 박평주 순천시지부장(5만 원)
 서울 서부지회 - 465만 원
 박용배 자문위원(100만 원), 신홍중 지회장(50만 원), 이학범 이사(20만 원), 남구현(10만 원), 강동희 친목회장(10만 원), 신현철 부회장(10만 원), 박찬부 감사(10만 원), 박성원 부회장(10만 원), 한익현 이사(10만 원), 김용현 이사(10

만 원), 이치하 자문위원(10만 원), 김충의(10만 원), 김승준 이사(10만 원), 이당선 이사(10만 원), 이기만 자문위원(10만 원), 정종성(10만 원), 이영한(10만 원), 이은중 이사(10만 원)

정읍시지부 - 38만 원

배두영 목포시지부장 - 20만 원

제과 단체

과우장학친목회 3,000만 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 2,000만 원, 한국제과기술연구협의회 500만 원, 한울회 500만 원, 거암회 500만 원,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 300만 원, 옹호골프회 300만 원, 한국제과기계공업협회 조기호 회장 300만 원, 316과자연구회 300만 원, 전국제과인모임회 300만 원, 대동맥 200만 원, 한국과자회 200만 원, 제과경영연구회 100만 원, 레이몬드과우회 30만 원, 수원제과인축구회 25만 원

제과관련 업체

(주)베이크플러스 1,000만 원, (주)빵굽터 김서중 대표 500만 원, 대두식품 500만 원, (주)빵굽터 사장단 300만 원, 내외설계 300만 원, 대흥기업 200만 원, 썬그레인코리아 200만 원, 현아종합포장 100만 원, 산하기획인쇄 100만 원, (주)비앤씨월드 100만 원, (주)바깥세상 신현섭 대표 30만 원

제과점

김영모과자점 본점 126만8천 원, 심옥섭과자점 100만 원, 하이밀제과점 100만 원, 루반도르제과점 100만 원, 씨트론제과점 100만 원, 속초 빵마을사람들 이재삼 대표 50만 원, 르메이에르과자점 김연섭 대표 30만 원, 군산 빵굽는작은마을 김희택 대표 23만 원, 안스베이커리 22만5천 원, 전주 풍년제과 우성점 20만 원, 올레뜨과자점 전일진 대표 10만 원

학교·학원

동경제과학교 이사장 300만 원, 해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1,2학년 213만 원, 김상엽제과제빵학원 김상엽 원장 200만 원, 해전대학 조남지 교수 100만 원,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100만 원, 한국관광대학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50만 원, 해전대학 서울교육장 03, 04학번 36만 원, 수원여대 박현숙 조교 10만 원

개인

익명 300만 원, 전중업 200만 원, 윤석호 100만 원, 임형범 50만 원, 정재일 50만 원, 김영민 50만 원, 이종렬 10만 원

■ 모금기간 : 2004년 5월 1일~2004년 9월 30일 ■ 문 의 :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TEL 02)2055-3347
 ■ 성금계좌 :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우리은행 : 050-109452-13-101 / 농협 : 360-01-046422
 ※ 회관건립을 위해 성금을 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10만 원 이상의 성금에 대해서만 명단을 게재하고, 그 외에 성금 기탁자는 소속 단체명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